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終戰以後最大의 蘇內閣改組

蘇「모」外相辭任

後任엔「비신스키」氏

今番「모스크바」放送內容은 如左하다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蘇聯邦內閣副議長(副首相) V·M·몰로토프同志의 外相의職務를解除하고 「A·Y·비신스키」를 蘇聯邦外相에任命하였다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內閣副議長「A·I·미코얀」을 外國貿易相의 職務로부터解任하고 「M·A·멘시코프」를 後任으로任命하였다

【런던五日發UP고려】今般「모스크바」放送에依하면 過去十年來의 蘇聯外相「V·M·몰로토프」氏와 또한多年間外相貿易相으로있었던A·I·미코얀」氏는 解任되고 ...

蘇新外相略歷

美批判을拒絶 發表에는驚愕

防衛同盟變貌? — 倫敦外交界서驚愕

外交失敗結果 — 外相更迭에西歐觀測

協力企圖前兆 — 國聯側의觀測

國共和平會談에對備 — 北平、南京서準備活潑進行

國府側代表指名으로 — 五日에李孫兩氏重要會談豫定

四個條項合意 — 十人委員會會談結果

社說 — 買穀과補償問題

人權擁護保障 — 兪氏韓委會談內容

李總理八日 韓委와協議

「뉴욕」서亞洲國家會議 — 和「인」問題로十六國非公式會議

金日成等三人莫府着

代表派遣은 通商關係?

比國答禮特使 七日午後來朝豫定

國會 — 監察府側 質疑 — 政府側서解明答辯

北韓金日成等 — 蘇副首相等과會談

駐日韓人의財產權 — 日本人과同一히取扱

糧穀買入은 補償物資로 — 大韓靑年團見解

統一方案原則 — 勞農黨韓委에提起

韓日通商會議 — 來十日東京에서開催

請申入加太猶 決可保安聯國

美포長官의辭任理由 — 北大西洋同盟、猶問題等起因

中首腦部會議 — 華南指導者를招請

美占領地關係의 國務長官補廢止

換유意見聽取 — 倫敦四國會談서合意

美共黨幹部는拘逆 — 三大統領會見言明

蘇不侵略提案 — 諾威에서拒絶

韓委活動에絕對協調 — 大統領談話에公報處釋明

防衛會談參加 — 丁國會外委서決定

日議會十九日再開

「라트」會談開始

東歐三國에 蘇軍十萬名

八面鋒

民聲 2月號 값 200圓
◇政黨政治와民主主義
◇經濟再建과韓美協定
◇元老院構成에對하여
◇自由主義者 呂運弘은어데로
◇貨幣改革의必要性
◇美國映畵의世界政策
◇조선어학회의앞으로할일
◇來日의劇場을위하여
◇東西유모어集
◇이번戰爭과詩의變貌
◇形式婚制와事實婚制
◇最近의獨逸文化
◇女人天下의中國
人物評 申性模論 / 헬레스論
◎地球는果然둥근가 지드니
◎美國學生들에게 아이젠하워
高麗文化社

國防部陸軍本部作戰教育局編纂
學校教練教本
서울·鐘路·世宗路153
發行所 文憲社 電話光化門834番

易學大家 金東礎先生
四柱 觀相
千里 特別宮合法
場所 서울市 ... 金豐旅館內

生缺補 募集
均明中學校 (六年制)
募集人員 ...
願書마감 三月十五日까지
試驗期日 三月十七日부터

民國의써·아이·써 正式登場

觀察府를 解消하고 司政局으로 職制新定

內外患의 情報蒐集이 所任

三千萬에 判決文公開

反民特裁서 公判問題를 討議

反民肅淸은 民族正氣

各地서 特委活動讚揚書翰遝至

李光洙病保釋

李覺鍾도 逮捕

反民公判廷修理

特委二次連席會議

外國에 旅行과 貿易은

國防部의 經由證받어야한다

脫稅도 여러가지

성말타 行興과려 券長會

步哨의 停止命令違反

李陸軍總參謀長梁氏眞相發表

國際新聞廢刊

金公報處長談

金社會部長等被檢

豐文女中生被檢

步哨의 義務알라

蔡參謀長一般에 談

鎭海士五期生入校式

自動車鑑札交附

謝禮金百萬圓

朝銀서 鍾路署에

敵產品잘 먹는 高紡

課長들이 共謀해 먹다 被逮

面서 朴興植公判

金允福自首

首都劇場主洪燦逮捕

特委嵐의 眞相糾明에 着手

申議長 特委激勵

全北支部서 日帝刑事逮捕

水組起工式

總工費一億萬圓

女職工의 美擧

麗水順天에 慰問金

張瑛世界第十位

三人組強盜團逮捕

南勞黨秘書逮捕

南黨員大擧自首

時局講演會盛況

忠北特委活動

對日賠償案 最後的決定?

曺秉球氏別世

學校當局에一言

今日小說休載

自由鐘

投稿規定

(동요) 봄비 — 윤석중

봄비는 보물 보물 보드라운 비
언땅을 녹절 녹절 녹여주는 비

봄비는 파뜩 파뜩 눈을뜨는 비
새싹이 파릇 파릇 돋아나는 비

봄비는 무럭 무럭 키가크는 비
애풀이 보슬 보슬 맞고가는 비

우리차지

내동생

여동국민 4의5 호승우

내 동생은 예쁜 동생
귀여운 동생
밤에 자다 오줌 싸고
꾸중 들을 때
엄마 엄마 잘못 했어
용서해 줘요
살살 빌며 어머니를
웃긴답니다

어린이

동화 물감 — 이순용

"어머니—! 엄마—!"
기용이는 그래두 작구만 엄마만 불읍니다.
"에 기용이 너 이거 싫으냐?"
언니는 이번엔 호주머니에서 다마를 그것도 왕다마를 꺼내 보입니다.
그래두 기용이는 또
"엄마—"
하고 울었읍니다. 어머를 가서 엄마가 대답이 없을까요?
그렇지만 언니는 엄마가 없어서 외레 좋았읍니다. 엄마가 조기만하면 곡깜을 꺼내 먹었다고 경을 칠 판이니까요.
하지야 뭐 꺼내기는 언니지만 먹기야 똑 같이 먹었지요. 그런데 정말은 기용이것 보다 언니게 조금 많었에요. 그래서 고만 기용이는 심술이 났읍니다.

"엄마— 언니가"
언니는 그림책을 꺼냈읍니다.
"기동아! 그럼 그림책"
그제서야 기용이는 선뜻 그림책으로 달려들었읍니다. 그런데 언니의 그림책을 보자 먼첨 달겨든 것은 아가였에요.
아가는 깍정이여요. 닷자곧자로 달겨들더니 그냥 그림책 첫장을 찢어 버렸읍니다.
기용이는 고만 약이 올랐읍니다.
"엄마 아가봐"
하면서 울어버렸읍니다. 그바람에 아가도 깜짝놀라 와— 하고 터졌지요.
언니는 어떻게해야 좋을지를 몰랐읍니다.
그러자 밖에서 엄마 소리가 났읍니다. 엄마가 온줄을 알자 언니는 얼른 곡깜을 집어다 입에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내그림책—" 하고 눈물이 글성 글성 하여집니다. 그런때 우는 게 제일이자 뭐에요.
"울지마라 그까짓 그림책을 갖어구 웰그러니"
언니는 고만 벵손이를 쳤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작은언니 기용이는 오늘도 또 매를 맞았읍니다.

새로나온책

「이솝얘기」 그림이야기 글박인채 대동무사 발행 값80원
「소학생」 3월치 아협발행 값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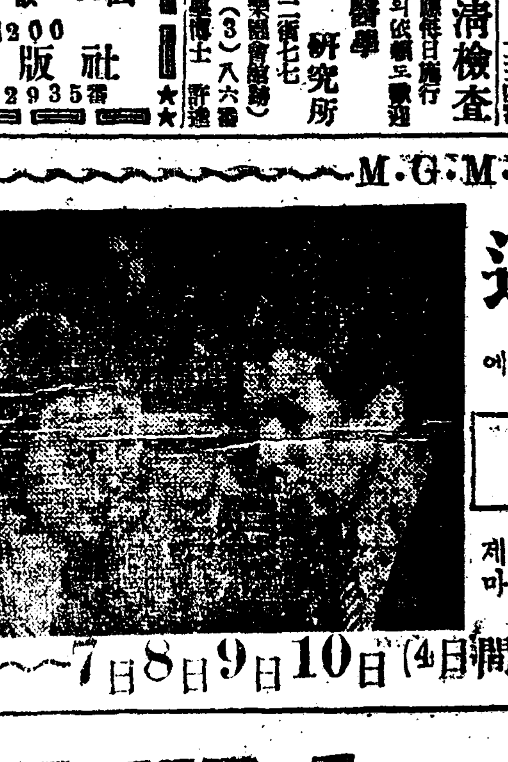
眼鏡界의 權威 愛眼堂 서울中區忠武路一街

高麗大學教授 崔文煥著
近世社會思想史 四六判 값 500圓
大成出版社 電話東局(5)2935番

三一慶祝特別公開
總天然色映畫 安哲永渡美中作品 서울映畫株式會社製作
무궁화동산 文教部推薦
極彩色의 絢爛한 무궁화동산! 天然色映畫는 오늘의 話題다 現代人의 常識이다 보자!「무궁화동산」百聞이 不如一見!
解放記念慶祝映畫 自由萬歲 同時上映
불타는 民族正氣! 先烈의 淚血史·自由萬歲!! 悲憤, 感激! 三一精神새롭다!
3日부터 市公館

國民保健에 赤信號!
65%가 肺結核保菌
適應症: 肺結核·食欲不振 / 貧血症·産前産後 / 腺病質·病後衰弱 / 一般虛弱·氣管枝가다루
世界的 強壯劑 네오톤
包裝 三·○○○錠 一·九○○錠 三○○錠
柳韓洋行

M·G·M·社作品
通信戀愛
에른스트·루빗이 監督
名畫週間
主演 제임스·스튜어-트 마가렛·설리반
7日8日9日10日(4日間) 首都劇場



本社廣告部直通 電話本局(2)四六九三番

痔疾專門 姜明宣肛門科
賣家 高級文化住宅
細菌血清檢查 朝鮮實驗醫學研究所

待望의書遂出刊!
1949…1648 三個年間全國大學
各大學教授 20餘名 責任解答
大學 入學試驗問題 (附模範解答) 定價300圓 送料30圓
菊版355頁의豪華版
國語·英語·獨佛語·數學·物象·生物·社會生活의全科 解放後의三年間問題의集大成 全卷三分之二가解答……
發行所 鍾路書院 서울市鍾路三街一三 電光(3)1137

벵갈의 決死隊
파트릭·놀스 리챠-드크롬웰 主演
勇敢無比·不滅의勳功과犧牲的精神을世界에떨친「벵갈決死隊」의悲情記!!!
(大스펙타클映畫)
8日부터 上演 團成社
同時上演 半島歌劇團公演 尹白林作 尹勇演出 春香傳